발행등록 11-1371029-000167-06
ISSN 2233-8632

질문과 가능성

2026년 《오늘의 도서관》은 삶의 이야기를 잇고 넓히며
우리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확장(Expansion)'의 여정을 담습니다.
그 일곱 번째 걸음에서는 굳어진 관성에 던지는 질문과 뒤를 잇는 탐구를 통해
삶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포착합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45 2026 09

2026 09

vol. 345

오늘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표지 이야기

어디로 다다를지 모를 낯선 길 앞에
잠시 멈추어 서 봅니다. 굳어진
관성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향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일러스트. 제이비(JB)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간등록번호 12-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민동용, 이은경, 조선영, 최윤경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82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디자인신화 02-324-6852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CONTENTS

2026 09 vol. **345**

주제에 다가가다

04 **주제 바라보기**
질문과 가능성 깊이 읽기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항상 물음표였다

08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로 읽고, 사서 추천 도서로 짚어보는
정답보다 큰 질문의 가치

12 **지혜를 만나는 두 권의 책**
옳은 물음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정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16 **주제 돌아보기**
질문의 수준은 '앎'에 달려 있다



《오늘의 도서관》 9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도서관을 마주하다

18 **그날의 신문, 그날의 삶**
기차가 산으로 향하자, 여행의 풍경도 달라졌다
레일 위의 미경(美景), 그곳에 덧씌운 이상(理想)

20 **사서 큐레이션**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를 묻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24 **꿈을 이루는 도서관**
어디에도 없는 책을 만드는 곳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도서관 출판창작소'

28 **국도 따라 만난 도서관**
책장 너머로 영감이 피어나는 길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도서관 여행

32 **세계의 도서관**
고대 사본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두바이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

책을 펼치다

36 **다시 읽는 동화**
일상을 흔드는 순수한 호기심
처음 만나는 낯설고 눈부신 세계

40 **문장 너머의 세계**
통념의 틀 밖을 바라보는 눈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44 **타인의 삶 읽기**
소설가의 길과 양심적 지식인의 길을 걷다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

48 **장면이 된 문장들**
토마스 핀천을 향한
폴 토머스 앤더슨의 애정
《바인랜드》에서 출발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소식을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5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질문과 가능성 깊이 읽기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항상 물음표였다

무엇을 묻든 '딸깍!' 답을 해주는 AI가 왔다.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밤을 지새우며 머리를 싸매던 시대는 끝이 났을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의 불을 환히 밝히고 탐구의 바퀴를 굴려야 한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세상을 바꾸고 지평을 넓혀온 호기심의 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산문집《휘파람 부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그런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나? 아니다. 신은 아무 질문도 필요 없는 에덴의 질서 속에 머무르라고 했다. 하지만 이브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사과를 먹었고, 판도라는 상자를 열었다. 인간이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자 혼돈의 세계가 펼쳐졌다.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으며 성장해야만 했다.

호기심과 질문이 오늘날의 인간을 만들었음은 신화만이 아니라 과학 역시 증명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우리의 선조 중에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다. "눈 덮인 산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수평선을 건너면 어떤 세상이 나타날까?" 그리하여 인류는 지구 곳곳으로 삶의 터전을 넓혀갔고, 우주에까지 그 발자국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가 게으른 관성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거스르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닐까?",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52년 자신의 전기 작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다. "저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습니다. 다만 호기심이 아주 많죠."



어떤 질문은 그릇된 해답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치를 발휘한다. 정신분석학의 개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 무의식의 심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며 여러 주장을 펼쳤다. 현대의 학자들은 그의 이론이 비과학적이며 인간의 행동을 성적 충동으로만 설명하는 환원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무의식 세계를 향한 그의 탐구 자체는 20세기 지성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임이 분명하다. 그의 질문은 과학과 의학은 물론 예술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답만 요구하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탐구의 시간

아무리 예리한 질문도 그 뒤를 따르는 성실한 탐구가 없다면 결실을 얻을 수 없다. 빠른 답을 찾는 게으름뱅이들은 달콤한 거짓과 음모론에 이끌린다. 오래전부터 유럽인들은 생각했다. '북반구에 대륙이 많으니 당연히 남반구에도 뛰어난 문명을 가진 대륙이 있을 거야.' 제임스 쿡 선장이 세 번의 대항해 동안 남쪽 바다를 샅샅이 뒤진 이유는 이런 망상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책상에 앉아 상상만 하는 자들을 대신해 남반구를 탐험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과학자나 모험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어린 날은 물음표로 가득했다. "하늘의 별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가을에는 방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동생이 생길 수 있어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던지는 질문을 기특해하던 부모가 버거워하며 되묻기도 했다. "너는 왜 이상한 것만 물어보니?" 그래도 우리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책과 인터넷을 뒤지기도 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물음표가 가득 담긴 종이를 받았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그런데 시험지에 빨간색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하는 인생을 십수 년 이어오며 아이는 달라졌다. 모든 것이 궁금하던 아이가, 점수가 되지 않는 질문은 시간 낭비라고 여기게 되었다. AI가 등장하자 숙제도 발표도 재빨리 맡겨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초고속으로 단축하는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 일일까?

수천 년 전 공자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그는 제자의 질문에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되묻는 일이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해 《논어 - 술이편》은 이렇게 말한다. "애타게 깨닫고자 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말로 표현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으면 틔워주지 않는다." 우리는 답 자체가 아니라, 절실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

삶의 다음 장을 열어줄 멈추지 않는 물음표

호기심과 각성(Arousal)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대니얼 벌린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호기심이 있다. 다양성 호기심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한다. 우리가 SNS와 쇼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 호기심이 활발할 것이다. 지적 호기심은 이와 다르다. 짧은 답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가게 한다. 벌린은 말한다. "음악적 뇌가 불협화음에 반응하듯, 과학적 호기심은 빈틈, 지식의 간극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된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장을 지낸 제임스 라이언은 졸업 축사에서 '인생의 필수 질문'을 권했다. 첫째, 잠깐만요, 뭐라고요?(Wait, What?) 둘째, 나는 궁금한데요?(I Wonder…?) 셋째,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Couldn't We at Least…?) 넷째,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How Can I Help?) 다섯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What Truly Matters?)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질문들이 있는가? 해답을 찾지 못해 버거운 것들도 있겠지. 하지만 그 질문은 열쇠가 되어 삶 앞에 나타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명석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와 문화 현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포착해 왔다.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도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겨레>에 '이명석의 어차피 혼잔데'를 연재 중이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로 읽고, 사서 추천 도서로 짚어보는
정답보다 큰 질문의 가치

몇 번의 타이핑과 클릭만으로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만, 그 과정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답에 이르렀는지보다 빠르게 찾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누군가 대신 답을 찾아줄수록 호기심은 점점 흐려진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문으로 미지의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연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책을 통해 알아본다.

도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세종도서 선정 도서

1
질문을 **주고받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전체 응답자의 74.3%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AI 시대에는 핵심 정보를 얻는 질문력이 중요하다'라는 응답도 81.3%에 달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이 많은 사람을 유난스럽게 여긴다'(68.3%)라는 인식이 강했고,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렵다'(49.0%)라고 답한 이도 절반에 가까웠다. 즉, 질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자료_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문해력&질문력 관련 조사, 2023
*대상_만 13~69세 남녀 1,200명

《경험의 함정》
로빈 M. 호가스·엠레 소이야르 지음, 정수영 옮김 | 사이 | 2021



우리는 주관적인 해석에 쉽게 휘둘리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도 한다. 그 결과 경험을 쌓을수록 점점 더 현명해진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자신의 경험에 갇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 책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왜 경험에서 배운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AI 시대의 소크라테스》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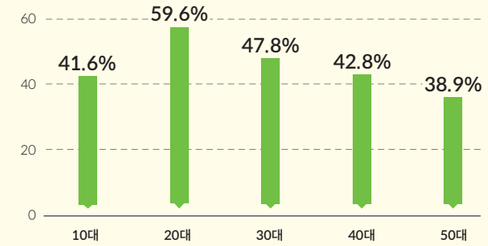


AI 시대에 어떻게 사유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담았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소크라테스처럼, AI는 못하지만 인간은 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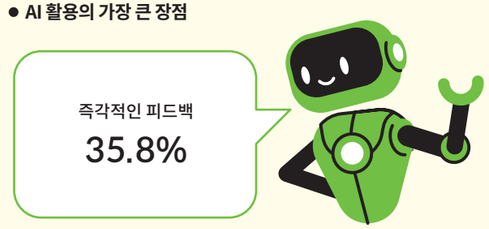
2
AI가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설문에 참여한 모든 연령대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학업이나 업무 외 일상에서도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으로는 '즉각적인 피드백'(35.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초 가이드라인 제시'(27.5%)가 뒤를 이었다. 쉽고 편하게 답을 얻는 편의성과 별개로,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신중함이 묻어났다. 응답자의 69.6%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으며,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2차 확인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83.0%에 이르렀다.

● 학업, 업무 외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한다



● AI 활용의 가장 큰 장점



● AI 제공 정보 신뢰도



*자료_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생성형 AI 서비스 일상생활 활용도 관련 조사, 2025 / SKT 뉴스룸, 돈 버는 설문, 2026
*대상_만 13~59세 남녀 1,000명 / 남녀 1,213명

《기울어진 문해력》
조병영 지음 | 21세기북스 | 2025



현대인들이 직면한 정보 환경을 분석해 '새로운 문해력'을 통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오늘날 우리는 AI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지만, 맥락 없이 파편화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정보만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 빈약한 주장과 거짓에 휘둘리기 쉬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해력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챗GPT의 거짓말》
트렌드연구소 지음 | 동양북스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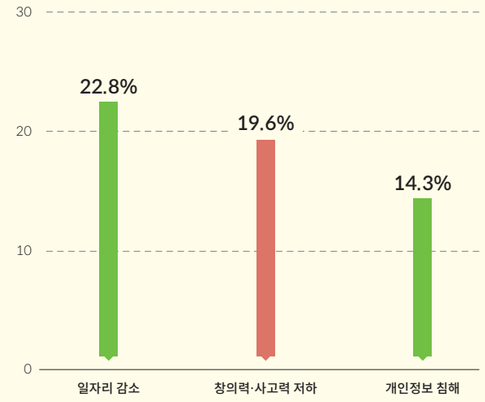
AI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인간이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두었던 데이터를 학습해 재조합하는 AI의 태생적 약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과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나누고, AI 시대에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바람직한 공존 방향을 제시한다.

3

우리의 **사유 능력**, 이대로 **괜찮**을까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75.7%)이 높지만, 인간의 사유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AI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로 '일자리 감소'(22.8%)와 함께 '창의력 및 사고력 저하'(19.6%)가 주요하게 지목되었다. 세대별로는 30대(20.3%)와 40대(20.9%)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저하'를 가장 크게 우려했고, 50대 이상은 '일자리 감소'(24.2%)에 이어 2위(20.9%)로 꼽았다. 반면 10·20대는 '개인정보 침해'(24.1%)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으며, 해당 항목은 한 자릿수 응답에 그쳤다. 이는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유 능력의 가치에 대해 세대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AI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





*자료_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2025
*대상_18세 이상 1,007명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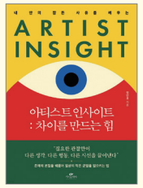
김유항, 황진명 지음 | 사과나무 | 2023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은 과연 혜택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이 책은 기계가 지식을 생산하는 오늘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창조적 능력이며, 결국 인간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명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인간적 면모를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아티스트 인사이트》

정인호 지음 | 카시오페아 | 2021



이 책은 예술이 21세기를 견인할 미래의 동반자라고 강조한다. 예술의 창조성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차이를 만드는 힘으로 관찰, 성찰, 창조, 발견이라는 네 가지 화두를 던진다. 클로드 모네 등 예술가들을 사례로 들어 다른 것에서 같은 것을, 같은 것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지혜를 전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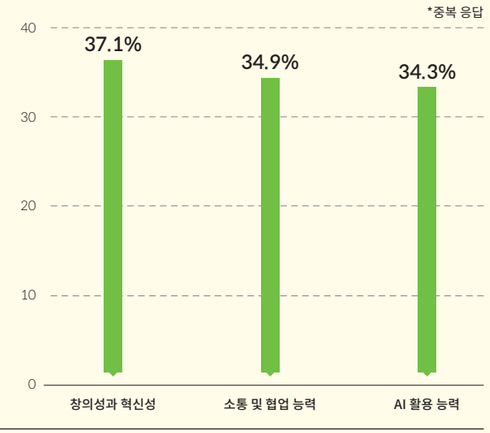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0%가 '호기심'을 가장 중요한 인재 특성으로 평가했다. 이어 절반 이상이 '호기심이 실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59.0%), '호기심이 더 많은 직원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51.0%)라고 응답했다. 국내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는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창의성 및 혁신성'(37.1%)과 '소통 및 협업 능력'(34.9%)이 'AI 활용 능력'(34.3%)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AI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질문을 이끌어 내는 호기심과 창의성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기술의 활용도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업무 능력으로서의 호기심



● AI 시대 직장인의 핵심 역량



*자료_SAS, 큐리아서티@워크 보고서, 2021 /
나우앤서베이, 대한민국 직장인 생성형 AI 활용 현황, 2023
*대상_기업 관리자 2,000여 명 / 직장인 800명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

이헌주 지음 | 라이프앤페이지 | 2025



AI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넘어 인간과 AI의 차별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저자는 이러한 인간과 AI의 경쟁 구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힘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고유성, 상상력, 자아 발견 등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일곱 가지 내적 경쟁력을 조명한다.

《AI 시대 생존 전략》

세가 쳉 지음, 홍민경 옮김 | 더페이지 | 2025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책은 AI가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창의성, 비판적 사고와 같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장, 학습, 비즈니스, 미래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 AI 시대에 생존을 위한 전략을 담았다.

옳은 물음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정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제대로 된 답을 얻으려면 제대로 질문하라. 철학은 질문에 응답하는 학문이자 질문을 만드는 학문이었다. 대화의 요령부터 문명의 구축까지, 옳은 질문이 풍요로운 답을 이끌어낸다.

글. 박사(북칼럼니스트)

AI 시대에 우리가 다시 던져야 할 질문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이한 철학 강의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직 미성년의 태를 벗지 못한 학생들은 정답만 외우면 되었던 교육에서 막 벗어나 새로운 공부의 초입에 얼떨떨한 듯 모여 앉아 있었다. 교수님은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며 철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더니, 대부분의 첫 강의에서 그러하듯 출석부를 훑어보시고는 대형 강의실 뒤쪽에 앉은 나를 불러 일어나라 하셨다.

"학생은 이름대로 똑똑하겠지. 자,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게."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내 머릿속에 왕왕 울리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아빠는 왜 내 이름을 박사라고 지은 거야?"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질문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내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AI가 아직 사용법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에 장난감 쥐어주듯 대뜸 쥐어지자 사람들은 떠듬떠듬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흰 화면 위로 유창하고 유려한 답변이 흘러나왔고, 다정하게 다음 질문을 재촉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승자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어떻게 질문해야 제대로 된 질문이지? 질문에 대해 질문해야 할 판이었다.

사고에 깊이를 더하고 문명을 밝혀온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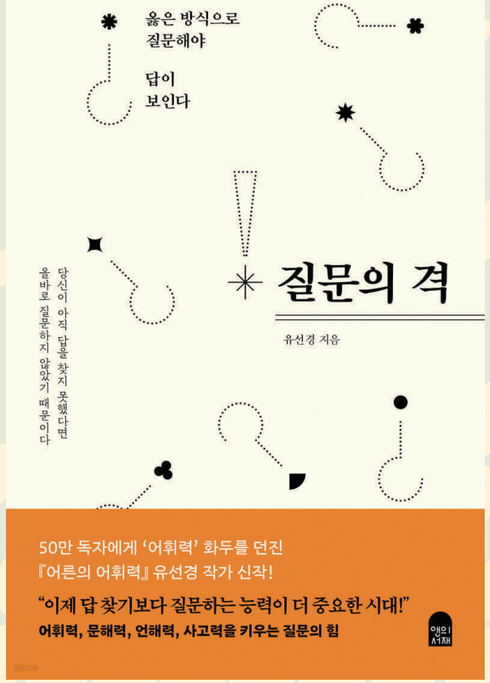
아무 질문이나 일단 던지던 사람들은 곧 새로운 디지털 중독인 '둠 프롬프팅(Doom Prompting)'에 빠져들었다. AI에 무의미하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으로 연결되거나 깊이 있는 이해를 돕지 못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수박의 겉을 핥았다. 질문이 중요하다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질문력'이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질문하는 법에 대한 책이 쏟아져나왔다. 새 장난감의 사용법을 하나씩 배워 가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 알아 가기 시작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질문은 옛날부터 언제나 중요했다. 수십년 전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첫 강의 때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었다. 사고에 깊이를 더하고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과 철학과 예술의 발전뿐 아니라, 하다못해 인간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질문하는 기술은 꼭 필요하다.

발상을 전환하고 세상을 개척한 질문의 격

유선경의 《질문의 격》은 "왜 옳은 방식으로 질문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시작한다.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다 옳은 질문은 아니다. 잘못된 질문은 문제를

"질문이면 다 좋은 줄 알았다. 안 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될 게 뭐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질문한 만큼만 답이 나온다."



대화를 열고 관점을 확장하는 새로운 질문의 기술
《질문의 격》
유선경 지음 | 앤의서재 | 2025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화를 조장한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쟤 왜 저래?”, “왜 이것도 못 해?”,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등등. 저자는 이 질문들을 조금만 고쳐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상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통제하려는 위치에서 내려와 질문을 ‘중립적’으로 바꾸기(24쪽)”만 해도, 불평과 비난은 대화의 시도로 바뀐다.

어떻게? 바꿔 보자. “쟤 왜 저래?”를 “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로, “왜 이것도 못 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로,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를 “너의 태도를 내가 어떻게 느낄 것 같아?”로.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질문한다 해도, 질문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지혜를 끌어내는 산파술의 대가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의 등에’라고 자처했다. 왱왱거리고 날아다니며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벌레. 그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이렇게 말한다. “덩치가 크고 혈통이 좋지만 덩치 때문에 굼뜬 편이라서 등에의 자극이 필요한 말에게 등에가 배정되듯, 신에 의해 나는 이 도시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런 등에 역할을 하라고 신께서 이 도시에 나를 배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온종일 여러분에게 내려앉아 여러분을 일일이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으라고 말입니다.(36쪽, 제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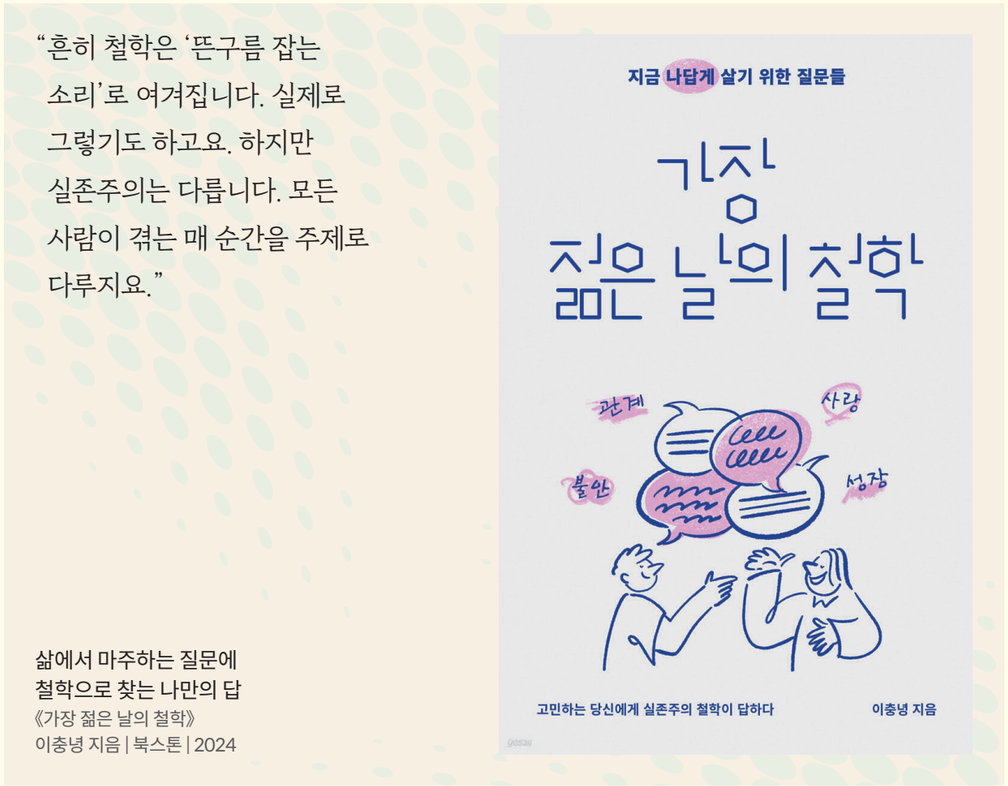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면 그런 짜증은 사소하다. 저자는 다양한 질문의 기술을 차근차근 알려준 뒤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위대한 질문들”의 예를 들어 질문이 가진 힘을 환기한다. “어떻게 하면 글자를 쉽게 익혀 편하게 쓰고 말하게 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 “어떻게 하면 냄비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을 들썩거리게 하는 힘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묻고 증기기관의 원리를 고안한 드니 파팽. “어떻게 하면 흔한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예술의 ‘공장’을 세운 앤디 워홀. 그들이 질문을 숙고하며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스스로 답을 품고 있는 일상의 물음들

이충녕의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은 우리가 삶에서 부딪치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는 방식으로 철학의 힘을 우리 곁으로 끌어온다.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착하게 살면 무엇이 좋을까?”,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행복할까?”, “돈과 꿈,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의미 있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등등.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이다. 출판사가 2030 세대의 고민을 조사하고 추린 질문에 저자가 철학적 지식으로 대답하는 형태로 쓰였다. 저자는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바로 지금의 고민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다. 철학이 삶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다른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다른 의미로 개념을 사용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집니다. 기존 것과 전혀 다른 유형의 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36쪽)”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하며, 예를 들어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되짚어 질문하며 저자는 다양한 각도의 답을 찾아나선다. 읽다 보면 제대로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질문 자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구나 싶어진다. 질문이 답을 품고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겠다.



박사 책에 대해, 문화에 대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쓰고 기록하고 있다. 각종 신문과 잡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해 왔다. 주요 저서로 《치킨에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다면》, 《나에게 여행을》, 《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주제 돌아보기



질문의 수준은 ‘앎’에 달려 있다

질문은 얼마나 모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아는지를 드러낸다.
아무런 질문도 할 게 없다면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혹은 알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다.
‘앎’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이다.
얼마나 부족한지, 무엇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마다 앎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방향을 거스르거나 틀어주고,
확대하고, 파고들게 하는 도구가 질문이다.

《질문의 격》 中에서 | 앤의서재

도서관을 마주하다

18
그날의 신문, 그날의 삶
기차가 산으로 향하자, 여행의 풍경도 달라졌다
레일 위의 미경(美景), 그곳에 덧씌운 이상(理想)

20
사서 큐레이션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를 묻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24
꿈을 이루는 도서관
어디에도 없는 책을 만드는 곳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도서관 출판창작소’

28
국도 따라 만난 도서관
책장 너머로 영감이 피어나는 길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도서관 여행

32
세계의 도서관
고대 사본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두바이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

기차가 산으로 향하자, 여행의 풍경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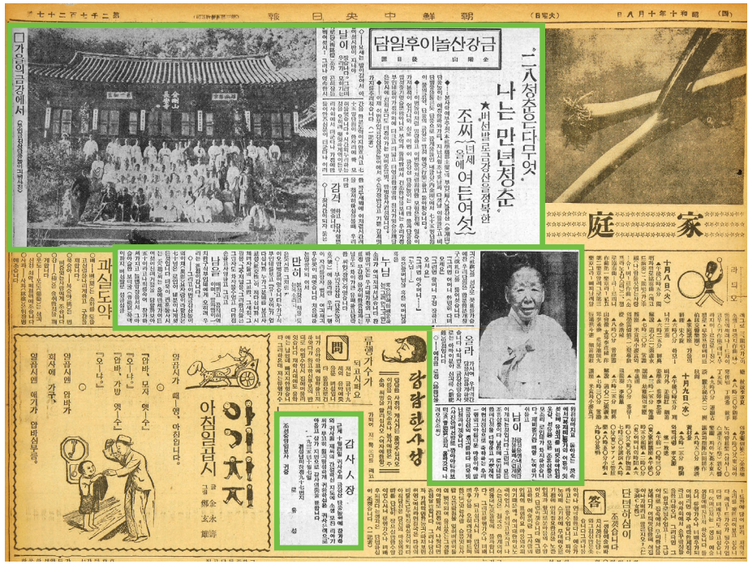
레일 위의 미경(美景), 그곳에 덧씌운 이상(理想)

일제강점기 금강산은 철도와 도로의 정비를 계기로 누구나 한 번쯤 찾고 싶은 근대적 관광지로 떠올랐다. 그곳으로 향한 사람들 가운데는 집과 부엌을 벗어나 처음 여행길에 오른 여성들도 있었다. 금강산 관광은 여성에게 새로운 바깥세상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당시의 여행 기록을 따라가며 근대 관광이 열어준 새로운 풍경과 그 안에 자리한 여성의 모습을 만난다.

글. 염복규(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철길 따라 피어난 근대의 여정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풍경과 문물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관광은 근대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자본주의 대중사회가 형성되고 교통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비로소 관광이 가능해졌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근원한 관광은 일본을 거쳐 조선에도 전파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대표적 관광지라면 단연 금강산을 들 수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8일 자
'금강산놀이후일담: 二八청춘은 다 무엇. 나는 만년청춘. 버선발로 금강산을 정복한 조씨(년세 올에 여든여섯).'

금강산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명승지로 많은 문학 작품과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미적 감상의 대상일 뿐 아니라 수많은 명찰이 있는 불교의 성지이자 도교의 선경(仙境)으로 인식되어 독보적인 종교적 위상도 지녔다. 금강산의 위상은 일본인들도 인정한 바였다. '후지산이 라파엘로의 명화라면 금강산은 로댕의 조각 같다'라고 한 총독부 기관지의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경성일보, 1930.2.18.).

일제는 1910년대 중반 경원선 준공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발의 중심은 외금강이었다. 총독부 토목국은 경원선 평강역에서 금강산까지 도로를 정비하고, 원산항에서 외금강 온정리까지 해안도로를 신설했다. 온정리 온천에는 서양식 호텔을 건립해 관광 거점으로 삼았다. 1919년 일본계 민간 자본이 연합해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내금강 개발도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경원선 철원역에서 분기해 내금강까지 전기철도를 부설했다. 이로써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관광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음양의 산수와 선녀의 산책

금강산 관광 루트가 외금강과 내금강으로 대별되는 가운데 양쪽의 암석과 나무의 많고 적음, 바위의 빛깔과 모양 등을 사회적 성별에 빗대어 구분하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총독부가 외금강 개발을 시작한 초기 금강산을 여행한 일본의 소설가 기쿠치 유호는 '외금강은 양, 내금강은 음'이라는 묘사를 남겼다(조선금강산탐승기, 1918). 외금강은 남성적이고 내금강은 여성적이라는 구분이다.

이런 인식은 최남선, 이광수 등의 기행문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1935년 조선중앙일보사는 금강산 부인 관광단 행사를 주관하면서 '외금강의 산용과 계곡은 내금강에 비겨 음침하고 험하여 좋게 말하면 남성적이요 굿게 말하면 악마적이라고 하겠거니와 그런데 내금강은 어디까지나 여성적이어서 선녀나 미인에 비길만 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본사 부인단은 맑고 순결한 계곡미의 내금강만을 구경하는데, 이러한 여성 본위의 금강산 탐승은 이번이 그 효시'라고 과시했다(조선중앙일보, 1935.9.24.). 그리고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한 금강산 관광의 후기를 스케치한 것이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8일 자 '금강산놀이후일담' 기사이다. 경성에서 출발한 1박 2일의 여정은 금강산전기철도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집을 오래 비우기 힘든 가정부인들의 관광길을 열어주었다.

부엌 밖으로 나온 여성과 남성적 환상

나아가 후기는 관광의 실질적 여정보다 부인 관광단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 점이 흥미롭다. 실제 관광단 모집 광고를 보면 여정은 아홉 곳의 사찰, 암자, 폭포, 동굴 등을 다양하게 들르도록 짜여져 있다(조선중앙일보, 1935.9.28.). 그런데 정작 후기 기사에 언급된 구체적인 장소는 장안사와 보덕굴 두 곳 정도이다. 그 대신 후기는 이번 관광을 통해 '부엌과 광과 방에서 건조한 날을 보내는 우리 가정부인네들이 가정 이외에 더 크고 더 넓고 더 영원한 생명의 천지가 잇슴을 깨달은 동시에 친척보다도 더 정이 가는 밋버운 말벗, 맘벗을 사귄 것'을 강조한다.

관광단에 지원한 '우리 가정부인네'들은 여성 일반이 아니다. '시체 녀자들의 그 교만, 그 새침, 그 깔봄, 그 주저넘음, 그러한 것들은 그림자도 차자 볼 수 업고 다만 겸손하고 사양하고 그리고 남을 애끼고 끔직히 역이며, 말과 맘이 일치한 구식 부인네'들이다. 이른바 신여성과 대비해 구여성을 치켜세우는 느낌이 뚜렷하다. 금강산 관광에 용감하게 지원한 구여성이야말로 당대 민족 언론의 남성적 시선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던 셈이다.

염복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연구 분야는 한국근현대사도시사다. 저서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화》,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는가》,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13: 일제 강점기》가 있으며, 공저로는 《새로 쓴 한국사특강》, 《도시를 보호하라》 등이 있다.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를 묻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전 세계 도서관·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90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주최하고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에서 WLIC가 개최된 것은 2006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다채로운 학술 세션과 실감형 독서 콘텐츠 체험, 대회 기간 중 열린 국립도서관장회의까지, 도서관의 미래를 밝힌 생생한 대회 현장을 담았다.

취재. 신병철 | 사진. 신성욱



8월 10일 개최된 개막식 현장. 이번 대회는 120여 개국에서 약 3,500명이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열렸다.



1



2

1 징을 울리는 개막 퍼포먼스에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의미를 담았다.
2 전시장에는 세계 도서관 산업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었다. (출처_IFLA, Lee Convention)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도서관계 올림픽'

이번 부산 WLIC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총 3,50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린 WLIC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회 기간에는 'AI와 지식 인프라', '문화유산 보존', '정보 접근성' 등을 다룬 200여 개의 전문 강연과 학술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위성회의, '문화의 밤',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도서관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10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IFLA 레슬리 위어 회장은 "담대하라(Be bold)"는 메시지를 전하며, "도서관이 대담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AI를 모든 대중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도서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개회식에서는 2005년 노르웨이 오슬로 WLIC 당시 2006 서울 WLIC 조직위원회가 IFLA에 선물했던 징을 다시 울리는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20년의 시간을 넘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진 이번 대회의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기술로 도서관의 미래를 그리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국내외 도서관의 혁신 사례와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엑스포 파빌리온과 전시가 열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 교류, AI 기술,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독서 콘텐츠를 선보였다.

엑스포 파빌리온 세션에서는 갈윤주 주무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 교류 업무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김경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AI 시대 도서관의 핵심 역할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처', '사실 검증 허브', '저작권 안심 지대'를 제시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진아 주무관은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AI 리터러시 연계 독서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며 도서관을 창의적 탐색의 장으로 확장하고, 사서를 독서와 창작을 돕는 퍼실리테이터로 제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부스에서는 다국어 및 실감형 독서 콘텐츠를 선보였다. 한국의 그림책과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국어 동화 콘텐츠'는 여러 언어의 동화 구연 음성과 자막을 제공하고, 종이책 그림에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더해 새로운 독서 경험을 구현했다. 또한 사서추천도서와 연계한 '증강현실(AR) 북카드'를 통해 실물 카드나 활동지의 이미지를 인식하면 화면에 3D 그래픽이 나타나 책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와 전시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식과 독서 경험을 확장하고 있는 사례를 한눈에 보여줬다.

세계 국립도서관의 연대, 미래를 향한 선언

국립중앙도서관은 8월 11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2026 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를 개최했다. 1974년에 전 세계 국립도서관장들이 공통의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협의체가 설립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40여 개국의 국립도서관장과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효성AI융합연구원 맹성현 원장과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 마렉 코발키에비치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 생산과 정보 환경의 변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의 확산에 따른 기회와 위험 등을 짚었다. 이어 호주, 영국, 튀르키예 국립도서관이 AI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3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회 기간 중 단독 세션을 열고 신기술 도입 및 적용 사례를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4 다국어 동화 콘텐츠와 증강현실(AR) 북카드를 선보인 국립중앙도서관 홍보 부스 모습 (출처_IFLA, Lee Convention)









5 국립도서관장회의에서는 40여 개국의 국립도서관장과 관계자가 참석해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 남영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회의에서 '부산선언'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초안을 마련해 제안한 '부산선언'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부산선언은 AI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이 함께 지켜나갈 공동 원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유산 보호,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 정보의 무결성과 신뢰성 보장 등 13개 원칙을 담았다.

참석자들은 공동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계 국립도서관의 운영 준거가 될 선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선언문을 보완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선언이 즉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AI 시대 국립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시작하고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영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선언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산선언이 세계 국립도서관의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시 이어지는 여정, 2027년 영국 런던에서

2026 부산 WLIC는 8월 12일 폐막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도서관 견학 등 부대행사는 13일까지 이어졌다. 차기 WLIC는 2027년 8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2027년 런던 대회는 1927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창립된 IFLA의 10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도서관의 연대와 혁신에 대한 논의는 이제 런던으로 이어진다.

어디에도 없는 책을 만드는 곳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도서관 출판창작소’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지만, 이를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과 나누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저마다 품은 작가의 꿈, 나만의 책을 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도서관과 사서가 다정한 조력자로 나섰다. 이웃들의 진솔한 삶을 책으로 엮어 낸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를 함께 따라가 본다.

취재. 신병철 | 사진. 김하람



1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1층에는 시민 저자들이 직접 쓰고 펴낸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높아지는 창작 욕구, 그 앞에 놓인 현실의 벽

최근 몇 년 사이 독립출판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독립서점 정보 플랫폼 ‘동네서점’에 따르면, 대형 유통망에서 벗어나 운영자의 고유한 철학과 취향에 따라 선별한 책을 판매하는 전국 독립서점 수는 지난해 900여 곳으로 집계되었다. 10년 전보다 200%가량 늘어난 수치다. 출판 업계에서는 독립서점의 증가 이유 중 하나로 독립출판의 활성화를 꼽는다.

인천 지역의 독립출판 열기는 더욱 뜨겁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읽걷쓰(읽고 걷고 쓰다)’와 맞물리면서다. 일상에서 읽고 걸으며 써 내려간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나아가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날로 커져 갔다. 하지만 서점에 유통되는 ‘진짜 책’으로 만드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원고를 다듬는 편집 과정부터 표지 디자인, 복잡한 저작권과 ISBN(도서 정보와 유통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절차를 모두 거친다 해도 1권당 평균 150만 원이 넘는 제작 비용은 커다란 장벽이었다.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글쓰기 강좌의 결과물 대부분이 단발성 비매품 형태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글이 어엿한 도서 형태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넘어서야 할 현실의 산은 높기만 했다.

출판 기획자이자 편집자, 디자이너가 된 사서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이 더욱 쉽게 출판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아이디어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가치, 그리고 사서의 역할에서 싹텄다. 글을 쓰는 이들에게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며, 사서가 출판 과정에 참여한다면 시민들의 부담과 참여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화번호 032-421-1152
휴관 매주 월요일, 공휴일



2



3

2 자신이 펴낸 책을 소개하며 출간의 의미를 나누는 출판물 전시 및 출판기념회 모습
3 출간되는 모든 책에는 ISBN이 부여되어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POD 방식으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

사서는 비록 출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책을 가까이에서 다루며 독자와 저자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게다가 과거 외주 제작에 의존하던 홍보물 제작도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해 사서들이 직접 제작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타 직군보다 책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컸기에 출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도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사서가 출판기획자이자 편집자, 디자이너로 직접 나서 시민의 글을 책으로 엮어내는 공공출판 지원 사업 '도서관 출판창작소'는 이처럼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고민과 도전 의식 속에서 2024년 닻을 올렸다. 사업 출발에 앞서 사서들은 독립출판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독립서점을 찾아 현장 실무를 익히며 편집, 교정, 디자인 등 실제 출판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쌓아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출판창작소는 POD(Print On Demand, 주문형 인쇄) 방식과 온라인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해 별도의 공적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도 운영 가능한 자립형 공공출판의 기반을 마련했다.

존중을 바탕으로 완성한 생애 첫 책의 꿈

'당신의 숨어 있는 글을 출판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첫 모집 공고가 게시되자마자 문의와 신청이 몰렸다. 신청자 대다수가 생애 첫 출판을 꿈꾸는 시민들이었다. 참여자가 선정되면 사서는 약 3개월의 제작 기간 동안 시민 저자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목차 구성, 제목 선정, 분량 조정, 이미지 삽입 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문장 구성과 문법 오류를 다듬는 감수 작업에는 인천교육이음센터 소속 퇴직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표지 디자인에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적극 활용해 저작권 제약 없이 개성 있는 이미지를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때로는 저자와 사서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사서들은 참여자에 대한 존중을 항상 첫자리에 두었다. 저자의 고유한 시각을 책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사서들은 작은 견해 차이까지 섬세하게 살피고 조율하며 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사서의 역할은 편집 과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까다로운 인쇄 규격과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자가출판 플랫폼의 승인 절차까지 도맡아 출판의 마지막 관문을 원활하게 넘도록 도왔다. 출간된 모든 책에는 ISBN을 부여하고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정식 등록해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출판물의 저작권은 모두 시민 저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었으며, 판매 수익 역시 저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그렇게 사서의 손길을 거친 시민들의 창작물은 도서관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출판을 넘어 삶을 잇는 공공창작 플랫폼

도서관 출판창작소를 통해 그동안 세상에 나온 책은 총 65종, 참여한 시민 저자는 101명에 달한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시집과 에세이, 소설, 자서전, 희곡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연령대와 장르 또한 다채롭다.

책 출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출판 이후에도 시민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예지 투고와 공모전 도전을 돕는 심화 교육 프로그램 '이제는 등단작가다!'를 운영하는 한편, 참여자들이 글쓰기 동아리를 결성해 서로 글을 주고받으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했다. 도서관 누리집에 신설한 '감동 서평 나누기' 게시판은 저자와 독자가 교류하는 온라인 소통의 장이 되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이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되고, 가족과 이웃들이 그 책을 읽는 경험은 시민 저자들에게 커다란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안겨주었다. 도서관 출판창작소를 거쳐 용기를 얻은 시민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정식 작가로 데뷔하는 뜻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출판창작소를 통해 책 출판 지원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공창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서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창작열이 어우러져 완성된 이 새로운 공공출판 생태계는 가슴속에 책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꿈 창작소'가 되어주고 있다.

미니 인터뷰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오혜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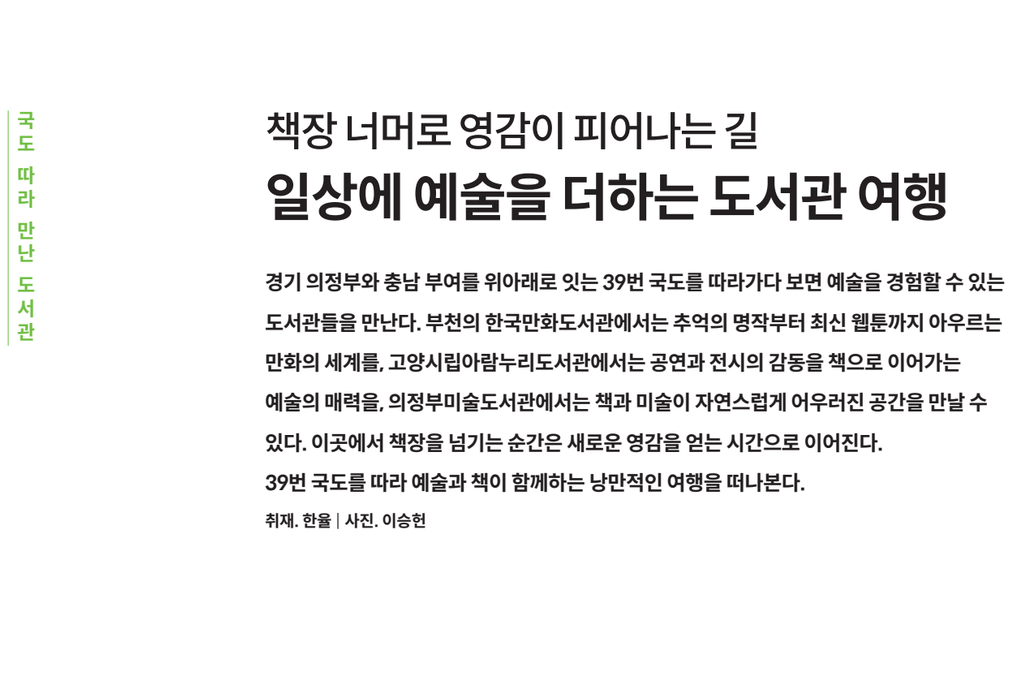
어르신이 휴대폰 메모장에 담아 두기만 했던 시 100여 편이 생애 첫 시집이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편지를 모아 한 가족의 역사가 담긴 서간집으로 탄생하는 순간들을 지켜보며, 도서관이 책을 읽는 소비 공간을 넘어 창작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칫 휴대폰이나 서랍 속에 갇혀 그대로 묻힐 뻔했던 소중한 삶의 기록들이 빛을 발하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출판 도우미'로 함께하겠습니다.

책장 너머로 영감이 피어나는 길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도서관 여행

경기 의정부와 충남 부여를 위아래로 잇는 39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들을 만난다. 부천의 한국만화도서관에서는 추억의 명작부터 최신 웹툰까지 아우르는 만화의 세계를,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에서는 공연과 전시의 감동을 책으로 이어가는 예술의 매력을,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는 책과 미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책장을 넘기는 순간은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39번 국도를 따라 예술과 책이 함께하는 낭만적인 여행을 떠나본다.

취재. 한율 | 사진. 이승헌


1



2


3

1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 각 층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구현했다.
2 도서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아트북
3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건축 분야 관련 전문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책과 예술이 하나가 되다: 의정부미술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미술 전문 도서관이자 의정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건축미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간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층을 오를수록 시야가 탁 트이고, 3층에서 내려다본 도서관은 하나의 거대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전면을 가득 채운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공원의 녹음과 부드럽게 스며드는 자연광은 공간에 여유와 깊이를 더한다. 아울러 곳곳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이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전한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담은 초대형 아트북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전 세계 9,000부만 제작된 이 도록은 가로 50cm, 세로 70cm, 무게 35kg에 달한다.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 서적을 누구나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장서 대부분을 예술·건축 분야 자료로 채우고 있다. 한국 최초의 추상미술 단체인 '신사실파' 관련 도서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 도록, 해외 미술 원서 등 다양한 전문 자료를 폭넓게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신사실파 관련 자료는 의정부미술도서관의 특색 있는 소장 자료로 꼽힌다.

북카페처럼 자유롭게 꾸며진 1층 서가에서는 누구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술 서적을 펼쳐볼 수 있다.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물론 예술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도 부담 없이 머물며 자신만의 속도로 예술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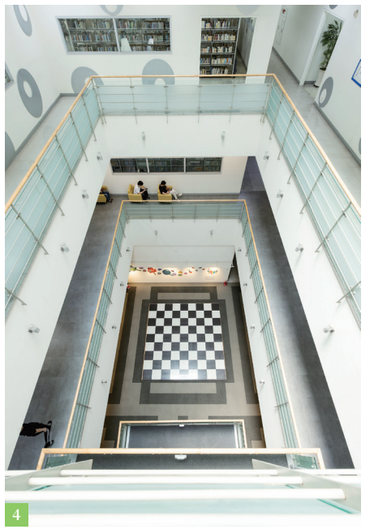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중앙이 시원하게 뚫린 오픈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느 층에서나 위아래 공간이 한눈에 이어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으며,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해 7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도서관은 공간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정발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2층과 3층 창가에는 바(Bar) 형태의 테이블을 새롭게 조성했다. 덕분에 이용객들은 특정 자료실에 국한되지 않고 도서관 곳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은 예술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된다. 2층 예술자료실에는 음악과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자료 2만여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의 미술·공연 예술 관련 도록과 전문 서적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책장을 넘기며 작품의 배경과 예술가의 세계를 살펴보다 보면, 전시를 감상하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은 자료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새롭게 단장한 3층 아람마루(강당)와 누리실(소강의실)에서는 강연과 토론, 창작 활동,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지하 1층 열린 전시 공간 '갤러리 빛뜰'에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내년 1월 3일까지는 11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하는 <2026 빛뜰 갤러리 고양작가 개인&단체전>이 열린다. 회화와 동양화, 판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4


5


6

4 고양시립아람누리 도서관 내부는 어느 층에서도 위아래 전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개방감이 특징이다.
5 예술자료실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예술 분야 자료 2만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6 다양한 예술 관련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 빛뜰'. 현재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추억의 명작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한자리에: 한국만화도서관

지금처럼 문화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절, 만화는 TV와 함께 가장 친숙한 즐길거리였다. 네모난 칸 속 그림과 이야기를 따라 한 장씩 책장을 넘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고는 했다. 웃고 울며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떠났던 그 순간은 세대를 넘어 많은 이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제 만화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향수에만 머무는 콘텐츠가 아니다. K-웹툰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만화는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만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한국만화도서관이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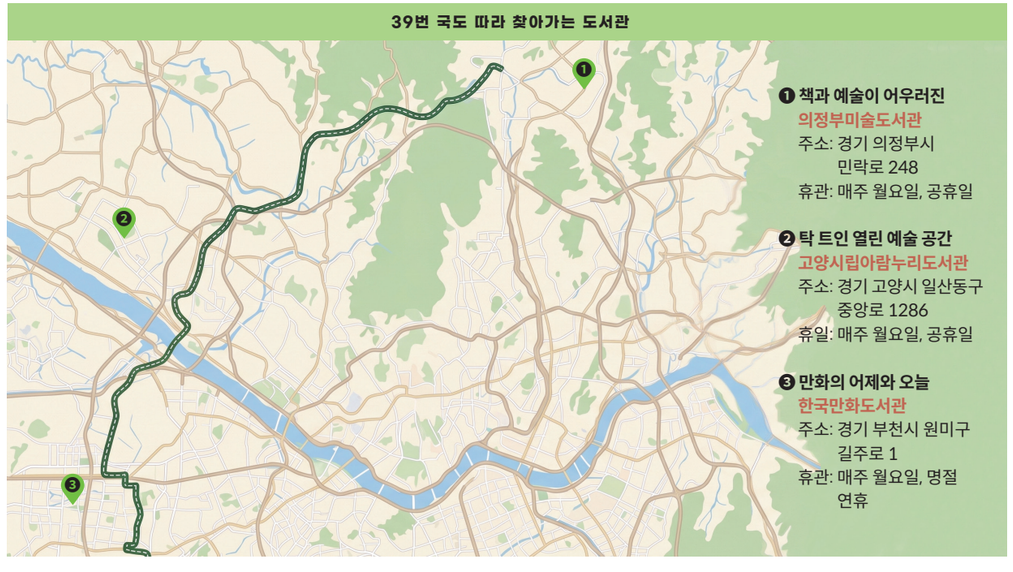

8

7 한국만화도서관 로비에 마련된 추천 도서 서가
8 도서관 곳곳은 한국 만화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한국만화도서관은 한국만화박물관 2층에 자리하고 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추천 도서 서가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재미 검증 완료, 만화 같이 보기'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다양한 만화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며 만화를 읽을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약 30만 권의 자료를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전문 도서관으로, 일반열람실, 아동열람실, 디지털열람실로 나뉜 공간에서는 만화책 열람은 물론 애니메이션 감상까지 가능하다. 1950~70년대 희귀 고만화 원문 자료부터 1980~90년대 한국 만화 전성기를 이끈 명작들, 최신 웹툰 단행본과 국산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까지 한국 만화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방대한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다. 추억 속 만화를 다시 펼쳐 보고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려는 이들에게도 반가운 곳이다.

39번 국도 따라 찾아가는 도서관



고대 사본에서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두바이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

인류의 역사는 곧 기록의 역사다. 고대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새겨진 문장에서 빛의 속도로 데이터센터에 축적되는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에 이르기까지, 기록은 시대의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하고 문명을 지탱해 온 가장 확실한 매개체였다. 2022년 6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자다프 수변지구에 문을 연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이러한 인류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가장 극적으로 교차하는 현장이자, 메나(MENA,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지식·문화의 거점이다.

글.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장)

거대한 책을 펼쳐놓은 듯한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이 두바이 크릭 수변 위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높은 층고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로비에는 방문객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반응하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정교한 아랍어 캘리그래피가 돋보이는 이슬람 희귀 필사본과 고문서들이 보물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막 위에 펼쳐진 반듯한 지식의 집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상징성과 기능성을 결합한 건축미로 주목받는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성서를 올려두는 접이식 나무 책받침 '레할(Rehal)'을 형상화한 외관은 전통적 상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낮에는 도심의 웅장한 랜드마크로, 밤에는 수면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두바이가 지향하는 지식 도시의 명확한 인상을 전한다.

총면적 약 5만 4,000㎡, 7개 층 규모로 구성된 공간은 일반, 아랍,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예술, 비즈니스, 지도·백과사전, 희귀서적, 정기간행물 등 9개 테마 도서관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용자의 연령과 연구 목적에 맞춘 환경은 도서관을 지식 교류의 공간으로 만든다. 소장 자료도 방대하다. 인쇄본 서적 150만 권, 디지털 책 200만 권, 오디오북 100만 권을 보유해 전통적 장서와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한다. 특히 운영 효율성의 핵심은 지하 수장고에 구축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에 있다. 이용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물류 로봇이 서가에서 해당 도서를 신속히 찾아 상층부로 배송함으로써 자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 경험을 최적화한다.

셰익스피어와 아랍의 문헌 유산이 만나는 자리

도서관 7층에 있는 보물관(Treasures Room)은 인류 문명의 정수를 품은 거대한 박물관이자 핵심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 13세기부터 전해 내려온 희귀본과 필사본, 고대 지도, 초기 인쇄본 등 수천 점의 희귀 사료를 보존·전시한다. 이곳의 가치를 더욱 독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랍·이슬람권 유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출판본을 비롯해 빅토르 위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시몬 드 보부아르 등 인류 사상사와 문학사를 빛낸 세계적 거장들의 유산이 아랍 고문헌과 한 공간에 깊게 조응한다. 이는 동서양을 아우르며 세계 문학의 전당으로서 기능하는 도서관의 포용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왼쪽부터)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몽테뉴, 단테의 초상화 아래 《돈키호테》, 《세컨드 폴리오》, 《수상록》, 《신곡》 등 희귀 판본이 전시되어 있다.





1 고지도집 《아틀라스 마이오르》 초판본은 섬세한 채색과 정교한 완성도로 당대 지도 제작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출처_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 홈페이지)

2 《의학정전》 초판본은 중세 동서양 의학을 집대성해 수백 년간 의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인류의 지적 자산이다. (출처_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 홈페이지)

대표 소장 자료로는 근대 서양 소설의 문을 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초판본(1605년 1부·1615년 2부), 17세기 인도 남부 골콘다 지역에서 제작된 화려한 꾸란 필사본, 요안 블라에우의 1662년 초판 《아틀라스 마이오르》 고지도집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문학, 종교, 지리학 전반에서 동서양이 교차하며 지식을 축적해 온 결정적인 역사적 사료다. 또 이슬람 황금기의 학문적 성과가 유럽 르네상스로 이어진 흐름을 보여주는 서적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비체나(이븐 시나)의 《의학정전》 초판본과 라틴어 번역본, 이븐 알하이삼의 광학 연구서 등은 지적 유산의 실체를 증언한다. 금박 장식과 정교한 이슬람 캘리그래피가 집약된 13~18세기 아랍어 필사본들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당대 최고의 예술적·문화적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

빛과 알고리즘으로 다시 숨 쉬는 오래된 기록들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이 특별한 진가를 발휘하는 이유는 유물을 단순히 유리 진열장에 가두어 두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4시간 엄격하게 제어되는 온·습도와 광량 보존 시스템으로 유물 훼손을 막는 동시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고대 사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희귀 원고와 고지도, 초판본 서적은 원본 손상을 최소화하는 고해상도 스캐닝 장비를 통해 정교한 디지털 데이터로 재탄생한다. 나아가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접목해 방문객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수백 년 전 유산을 고화질 화면으로 확대해 보고 실시간 텍스트 검색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수장고의 로봇 시스템과 연동된 디지털 검색 플랫폼은 물리적 장서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계를 허문다. 시공간을 초월한 문학적 유산이 21세기 AI와 결합해 누구에게나 열린 지식 자산으로 거듭난 것이다.

황량한 사막 도시 두바이에 세워진 이 거대한 지식의 저장고는 실물 유산이 지닌 역사적 아우라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뛰어난 접근성이 결합할 때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학술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한다. 아카이브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에 관한 질문을 다시 던진다. "우리는 오늘, 과거의 지혜를 어떤 모습으로 기록하고 미래에 전할 수 있을까?" 시대를 뛰어넘는 고대 사본의 가치와 동서양 문학의 정수, 그리고 이를 제약 없이 확산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조화. 무함마드 빈 라시드 도서관의 독창적인 행보는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고 전달할 것인가라는 기록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임기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이자, 아프리카연구소장이다. 저서로는 《베르베르 문명》, 《시대의 지성 노암 촘스키》, 공저로는 《중동의 이산과 이주의 역사》, 《7인 7색 아프리카》 등이 있다.

책을 펼치다

36
다시 읽는 동화
일상을 흔드는 순수한 호기심
처음 만나는 낯설고 눈부신 세계

40
문장 너머의 세계
통념의 틀 밖을 바라보는 눈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44
타인의 삶 읽기
소설가의 길과 양심적 지식인의 길을 걷다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

48
장면이 된 문장들
토마스 핀천을 향한 폴 토머스 앤더슨의 애정
《바인랜드》에서 출발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일상을 흔드는 순수한 호기심

처음 만나는 낯설고 눈부신 세계

‘세상에는 더 이상 시가 없다고 생각되나요?’ 이원의 시 <잠봉뵈르가 말하기를>의 첫 구절이다. 성적을 올려준다는 학원 간판들, 주식 시세 그래프, 난폭한 뉴스로 꽉 찬 휴대폰 화면이 시선을 점령하는 이 세계에서 시란 맑은 숨과 같다. 시를 읽는 시간은 경쟁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언어의 위엄을 누리는 시간이다. 시인의 눈은 호기심으로 운영된다.

글. 김지은(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



닫힌 서랍 너머로 향하는 용기

시인의 눈을 따라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 규칙과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싶어진다. 시를 낭독하는 일은 소리의 설렘을 읽는 일이기도 하다. 경제적 효용에 매몰된 이들은 이 세계에 시가 없다고 외친다. 시가 없으니 시 아닌 것들로 생각을 채워라, 시를 찾지 마라, 한가롭게 시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를 호도한다.

이원은 <잠봉뵈르가 말하기를>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서랍이 열어놓은 옷장에 들어가봐요 / 가도 가도 벽일 땐 / 모든 날들은 밤으로부터 / 이어 붙여봐요 / 숨어 있을지 몰라요.’ 옷장 안에서 ‘잠봉뵈르, 부르면 잠봉뵈르와 꼭 닮은 그들이 우르르 돌아본다니까’라며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운다. 호기심은 우리가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도록 도와준다. 시를 읽으며 온종일 닫혀 있던 서랍의 갑갑함을 상상하고, 낯선 샌드위치의 이름인 잠봉뵈르를 호명해 본다. 처음 만나는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본다. 호기심은 모험을 부른다.

이번에 만나보는 동화들은 일상을 흔드는 순수한 호기심을 다룬다.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는 궁금해서 땅을 팠다가 상상 초월의 거대한 무언가에 접근하게 된 두 어린이의 이야기다. 《이파라파냐무냐무》는 미지의 생명체에게 다가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려 깊은 꼬마 마시멜롱이 주인공이다. 《별의 아이》는 한 아이의 탄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은 호기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찾지 못한 다이아몬드의 의미: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이 그림책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월요일에 샘과 데이브는 땅을 파기 시작한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아낼 때까지 땅을 파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은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데, 덕분에 독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샘과 데이브가 지치지 않고 삽질을 하는 근처에는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지만, 주인공들은 모르고 독자만 그 사실을 안다. 같이 간 강아지는 보석의 존재를 눈치채지만 샘과 데이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삽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자리만 아슬아슬하게 비껴간다.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맥 바넷 글, 존 클라센 그림,
서남희 옮김 | 시공주니어 |
2014



결국 두 아이는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한다. 마치 이 모험이 빈손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두 아이가 도착한 곳은 출발한 곳과 미묘하게 다른 구석이 있다. 아마도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단순해 보이는 이 작품이 주는 커다란 울림은 시작과 끝의 차이에 있다. 호기심은 모험을 이끌고, 그 모험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다. 긴 삽질 끝에 샘과 데이브가 얻은 것은 경험이라는 자산이다. 더 끈끈해졌을 둘의 우정, 지치고 힘든 순간을 버텨낸 인내심, 모험을 끝냈다는 자신감 등은 다이아몬드보다 값지다. 둘은 이제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장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든 호기심: 《이파라파냐무냐무》

이 책에 등장하는 몽실몽실한 마시멜롱들의 몸은 하얀색이다.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순진무구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끝이 뾰족한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는 몸이 뭉툭해서 세심한 동작을 해내기 어려운 마시멜롱을 대신해 갸웃거리며 마음을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마시멜롱들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모자다.

어떤 일에 한번 호기심을 갖게 되면 답변을 찾아낼 때까지 호기심은 점점 자란다. 호기심은 우리를 생소한 장소로 데려가기도 하고 큰 결심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책에는 마시멜롱들이 두려워하는 정체불명의 시커먼 털숭숭이 괴물이 나오는데, 이 괴물이 내지르는 소리가 바로 '이파라파냐무냐무'다. 두려움을 이기고 작은 마시멜롱 하나가 그 고함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길을 떠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모험이다. 마시멜롱의 용기 덕분에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이파라파냐무냐무》
이지은 글·그림 | 사계절 | 2020





《별의 아이》
클레어 A. 니볼라 글·그림,
이상희 옮김 | 대교 | 2026

고함의 의미가 치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독자들은 털숭숭이 괴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서른 개를 훌쩍 넘는 마시멜롱들의 생김새가 치아를 닮았다는 것도 그제야 깨닫는다. 상대방의 서툰 표현을 이해하고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친구가 되게 만든 마법의 열쇠는 호기심이었다.

호기심은 인생의 부싯돌: 《별의 아이》

대우주에서 태어나는 작은 아기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면 그들은 왜 지구에 내려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이 책은 그 원인을 호기심에서 찾는다. 컴컴한 우주 공간에서 증기 불꽃의 형태로 푸른 지구를 바라보던 별아이는 지구가 궁금해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기로 결심한다. 그림책은 별아이가 지구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다룬다. '저기는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별아이의 삶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함께 진행된다.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하면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덮치는 온갖 느낌과 소리를 마주하게 된다. 상상하지 못했던 동물과 식물들을 만나면서 이들도 모두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는 쉬지 않고 어딘가를 보고 있다. 시장에서 빨간 사과를, 폭풍우를 몰고 오는 검은 구름을, 고목에 난 깊은 구멍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지구에서 보낸 시절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야 그는 자신이 왔던 곳, 별들 너머 우주를 바라본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를 달리게 만든 부싯돌은 호기심이다. 다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을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책은 알려준다. 이어지는 질문이 있기에 오늘도 삶은 아름답다.

김지은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바람 속 바람》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평론집 《거짓말하는 어른》,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썼으며,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너와 나의 빨강》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통념의 틀 밖을 바라보는 눈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인간 너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때로는 동물, 때로는 영적인 존재의 눈이 독창적이고 거대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작품마다 과학과 영성(靈性),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사실과 상상력의 세계를 거침없이 결합해 왔다. 획일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해석하고 사유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와 함께 내면의 지평을 넓히는 지적 모험을 떠나본다.

진행. 신병철 | 사진. 최우석



Q. 얼마 전 발표한 《영혼의 왈츠》는 어떤 작품인가요?

A. 이번 신작은 주인공 '외제니'가 내면 여행을 통해 네 번의 전생을 마주하며 영혼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에요. 종말을 앞둔 세상을 구하기 위해 12만 년 전 인류 문명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험을 그렸죠. 인류가 불을 발견한 선사시대부터 처음으로 문자가 쓰였던 수메르, 수학과 철학을 꽃피운 그리스까지 문명의 결정적 순간들을 통과하게 돼요. 특히 문자와 책, 그리고 도서관이 탄생하고 발전하던 순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식이 축적되고 전파되던 인류 문명의 위대한 장면들을 전생 체험이라는 장치로 조명했어요.

Q. 이번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오늘날 인류 문명은 극단적인 대립과 폭력, 혐오로 인해 큰 시련을 겪고 있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인류를 일깨우려는 계몽주의와 인간을 다시 무지와 야만의 어둠으로 끌어내리려는 몽매주의의 충돌을 다루고자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품은 시기이기도 해요. 폭력과 퇴행의 반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열쇠는 과거의 지혜가 담긴 책과 도서관에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지식을 전하는 것만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게 하는 힘이에요.

Q. 작가님의 작품들은 동물, 신, 영혼의 눈 등 독창적인 시선이 돋보이는데요.

A.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시스템과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미나 고양이, 때로는 천사나 영혼의 눈을 빌려 낯선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고 해요. 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은 의식의 확장, 과학과 정신의 균형이에요. 오늘날 지식의 탐구는 물질문명을 넘어 정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의식의 진화 없이 인간의 진정한 진화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적 탐구와 정신세계를 작품 속에 함께 녹여내려고 해요. 이러한 색다른 시선들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의식을 확장하고, 인류와 자신에 대해 깊이 탐구하도록 돕는 것이 제 작품의 핵심 메시지예요.





1 1993년 국내에 출간되어 큰 사랑을 받은 대표작 《개미》는 지난해 말부터 웹툰으로도 연재되고 있다. (출처_카카오엔터테인먼트)

2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는 상상력과 영감을 깨우는 워크숍인 '마스터 클래스'를 꾸준히 개최해 독자들과 함께 창작의 즐거움과 지적 교감을 나눈다. (출처_베르나르 베르베르 공식 홈페이지)

Q. 소설의 아이디어나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A. 상상력은 근육과 같아서 매일 꾸준히 단련해야 유지돼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는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 이 습관이 창의성을 지속하는 바탕이 되죠. 영감의 주요 원천은 꿈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꿈은 외부 간섭이 없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이자 날것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세계예요. 꿈을 꾼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

> 한국 독자들은 획일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 새로운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시도를 주저 없이
> 받아들여요.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독자들과
> 깊은 지적 교감을 나눌 수 있어
> 한국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잊기 전에 바로 기록하며 영감을 얻곤 해요. 또 세상에 만연한 폭력이나 기후 위기처럼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문제의식 역시 창작의 큰 동기예요. 소설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통해 세상에 경각심을 주고 독자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려고 해요.

Q. 왜 한국에서 작가님의 작품이 유독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한국은 늘 미래를 바라보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예요. 프랑스 독자들이 주로 전통이나 신화 같은 과거 이야기를 즐겨 찾는 반면, 한국 독자들은 제 작품에서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곤 하죠.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저력과 놀라운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에너지가 새로운 시도와 지적 상상력을 추구하는 제 소설의 세계관과 깊은 공명(共鳴)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Q. 작가님이 바라본 한국 독자만의 특별한 매력이 궁금합니다.

A. 단언컨대 한국 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 호기심을 지닌 분들이에요. 높은 교육 수준과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획일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시도를 주저 없이 받아들이죠.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찾으며 만난 독자들은 저에게 늘 특별한 에너지를 줘요. 자신의 독서 경험과 감상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나누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거든요. 이처럼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독자들과 깊은 지적 교감을 나눌 수 있어 한국은 제2의 고향처럼 특별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Q. AI 시대에 독서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A.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복제하고 재편집할 뿐, 독창적인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지는 못해요. 역설적으로 AI의 등장은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지고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AI 시대에 독서의 가장 큰 가치는 개인화된 사유와 내면을 향한 깊은 집중에 있어요. AI가 텍스트를 요약해 줄 수는 있어도 독자 각자가 지나온 삶과 경험을 투영해 고유한 해석까지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책을 펼쳐 집중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하고, 범람하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가려내는 힘을 키워줘요. 상상력을 확장하는 보조적인 도구로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창의성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는 지난 6월 국립중앙도서관이 마련한 인문학 강연에서 200여 명의 독자들과 만나 '상상력의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결국 스스로 읽고 깊이 생각하는 독서를 통해서만 단련할 수 있어요.

Q. 작가님에게 도서관은 어떤 의미의 공간인가요?

A.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과 지혜를 지키는 문명의 가장 견고한 보루예요. 지식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핵심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죠.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어린 시절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 탈출구였어요. 독자들이 도서관에서 수많은 지식과 만나며 사유하고 의식을 확장해 나가길 바라며, 그 여정 속에서 제 책들도 마주한다면 더욱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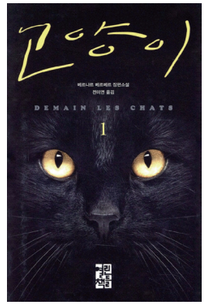
Q. 미래에 어떤 작가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A. 100년, 200년 뒤, 그보다 더 먼 후대에도 여전히 제 작품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작가로 남기보다는 독자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 준 '의식의 확장자'로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획일적인 정보만 소비하기 쉬운 시대이지만, 독서를 통해 깊이 사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의성을 펼치고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여러분만의 의식의 모험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과학 기자로 활동하다가 120여 차례의 개작 끝에 1991년 출간한 장편소설 《개미》가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나무》, 《타나토노트》, 《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등 과학적 지식과 기발한 지적 상상력을 결합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냈다. 특유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관습을 전복하는 시선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으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경계를 넘어 다른 눈으로 세상을 읽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대표작



《고양이》
전미연 옮김 | 열린책들 | 2018
암고양이 바스테트의 시선으로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성찰한 소설이다. 테러와 전쟁에 직면한 인류에게 지구상 다른 생물종과의 연대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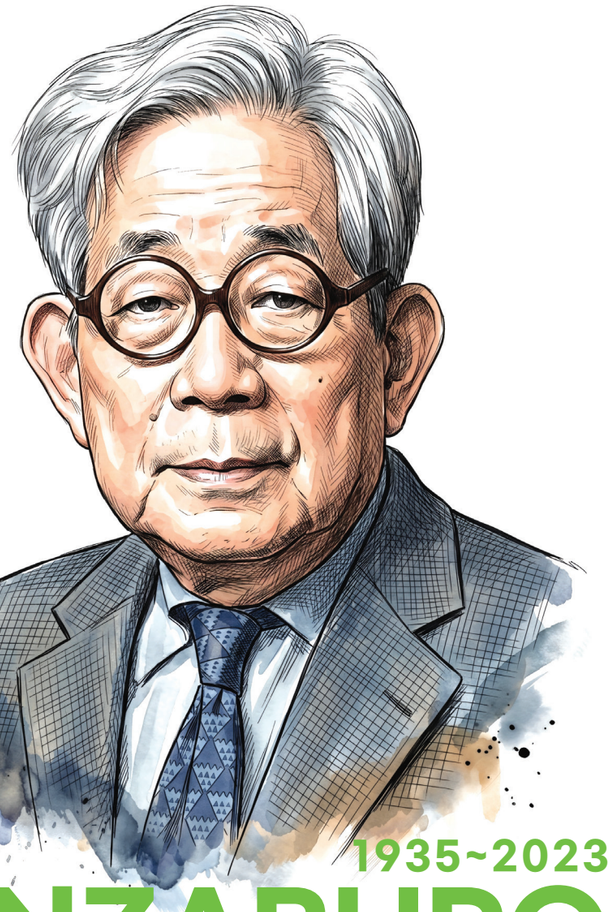
《기억》
전미연 옮김 | 열린책들 | 2020
퇴행 최면으로 111번의 전생을 탐험하는 역사 교사의 이야기다. 아틀란티스로 이어지는 최초의 전생을 추적하며 개인의 기억을 넘어 인류 문명과 역사의 의미를 탐구한다.

소설가의 길과 양심적 지식인의 길을 걷다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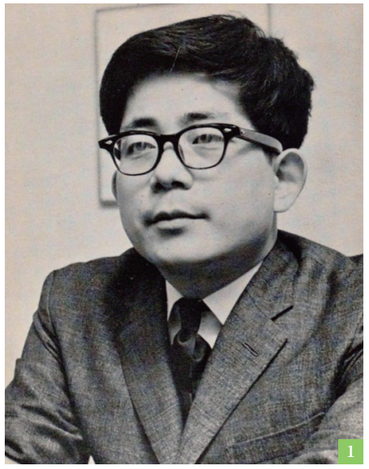
오에 겐자부로(1935~2023)는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일본 작가로는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첫 수상 이후 26년 만의 일이었다.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는 기자와 나눈 대담에 다른 인터뷰 내용을 더한 책이다. 오에는 회고록 성격의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담집인 이 책이 사실상 그의 회고록이다.

글. **표정훈**(출판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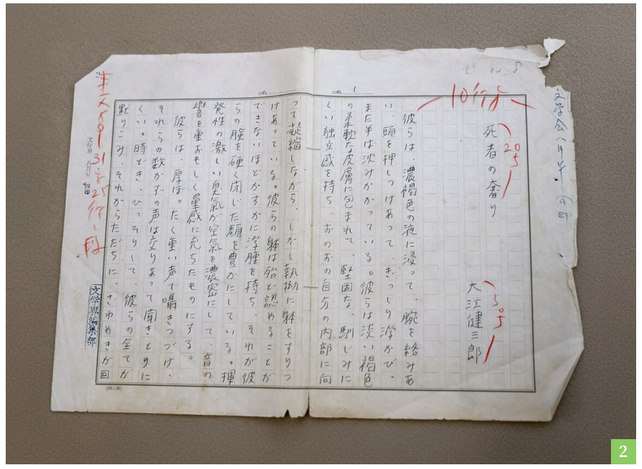


1935~2023

OE KENZABURO



1



2

1 1962년, 전후 일본 문단을 이끄는 청년 작가로 주목받던 20대 후반의 오에 겐자부로 (출처_Wikimedia Commons)

2 1957년 당시 도쿄대학 불문과 3학년(22세)이던 오에 겐자부로가 발표한 단편 소설 《죽은 자의 사치(死者の贅沢)》 친필 원고 (출처_도쿄대학 문학부 오에 겐자부로 문고)

어린 시절의 오에, 세심하게 보고 주의깊게 듣는 습관

오에 겐자부로는 어떤 어린이였을까? 시코쿠 산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에는 작문 숙제에 "바닷가에 살면 파도 소리 때문에 조용히 살 수 없을 텐데 산속에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산속 마을이야말로 부스럭부스럭, 왁자지껄 시끄럽다"라고 지적했다. 오에는 그동안 조용하다고만 생각했던 산속에 무수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세심하게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자고 다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오에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오에하고 길을 가다 보면 자꾸 멈춰서서 물끄러미 뭔가를 쳐다보거나 어떤 소리에 신경을 쓰거나 해. 별난 녀석이야." 오에는 그렇게 보고 들은 것들을 관련성을 두고 연결하는 것, '이야기하기'란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많은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깨달았다.

'3년 집중 독서법'과 지식을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

오에는 도쿄대학 불문과 스승 와타나베 가즈오에게 하나의 주제를 3년 단위로 찾아 읽고 공부하는 방식을 배워서 평생 실천했다.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B5 크기 카드에 개요, 인상적인 점 등을 메모했다. 해외 강연 후 귀국길 공항에서 작가이자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에 관한 20년치 독서 카드를 넣어둔 트렁크를 도난당한 일도 겪었다.

기억력 좋기로 유명했던 오에에게 비결이 있었을까? 무언가를 읽으면 꼭 메모해 둔다. 어떤 지식이 애매하다고 느끼면 즉시 사전이나 책을 찾아 확인한다. 어머니는 어린 오에에게 "읽은 것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면 읽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오에는 이 말을 평생 되새겼다. 갖고 있는 책의 20분의 1 정도는 사전이다. 무인도에 한 권만 갖고 간다면 태양전지식 전자사전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만큼 정확한 지식을 추구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일상은?

여행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가 아니면 오에의 일상은 읽고 쓰는 일밖에 없었다.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오후 2시경까지 쓴다. 아침 겸 점심을 먹은 뒤 우편물을 정리하며 답장을 쓰고, 7시경까지 책을 읽고 저녁을 먹는다. 다시 10시에서 11시 사이까지 책을 읽는다. 대략 하루 6시간 정도 읽고, 7시간 정도 쓰는 셈이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뒤에 일상에서 바뀐 것이 있을까? 없다. 차를 타면 책을 읽기 어려우니 전철을 타는 것이 원칙이다. 힘써야 하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고장 난 전기·수도 수리 등도 도맡아 한다. 자전거를 타고 직접 장을 보러 갈 때가 많고, 가족과 함께 슈퍼마켓에 갈 때에는 짐을 전부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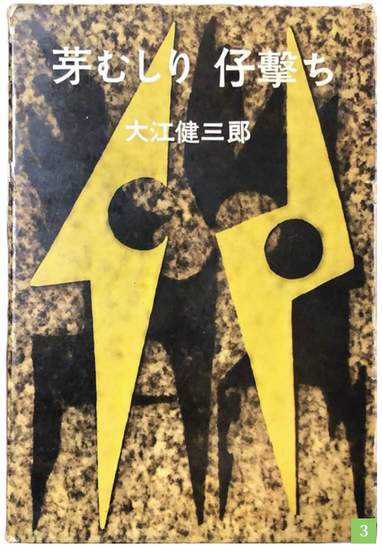
민주주의와 평화헌법 수호에 대한 신념

오에 겐자부로에게는 사회운동가, 평화운동가라는 소개가 붙는다. '일본의 행동하는 양심'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수정이 추진되던 2014년, 헌법을 지키기 위한 '9조의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가장 관심 깊은 사회문제를 묻자 답했다.

"헌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 모든 것의 근간에 그것을 두고서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강연이나 기고도 하다 보니 협박당할 때도 있다. 3년 이상 집 주변에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지기까지 했다. 집까지 찾아와 딸을 위협한 이도 있었다. 오에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좋았던가, 무의미했던가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헌법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 있기에, 다음 세대가 내려주겠지요."



3


4

3 1958년 출간한 첫장편소설《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芽むしり仔撃ち)》 초판본 표지 (출처_고단샤, 講談社)

4 1994년 스웨덴의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으로부터 노벨문학상을 받는 모습 (출처_노벨재단, Lars Åström)



5

5 2013년 도쿄에서 열린 반핵(탈원전) 시위에서 연설하는 모습. 오에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출처_Wikimedia Commons)

가르치거나 지도하려 하지 않는 원로의 자세

오에가 젊은 소설가들에게 조언한다.

"순문학으로 훗날 남겨질 만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겠지만, 순문학을 쓰고 순문학을 읽고자 하는 사람만이 참된 문학을 읽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지적인 창조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쓰면서도 어떤 작품이 될까 확실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평생의 일이자 습관으로 원고지를 계속 채워 가는 것이 작가의 생활이다.

"그것을 50년간 해 왔다는 것은 정말로 잘해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가 일본 안팎에서 존경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적, 지도자적 역할을 할 자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에 '사람을 지배하는 폭군도 지배당하는 노예도 아닌, 그렇게 독립해 있는 인간이 좋다'라는 의미의 구절이 있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을 지배할 생각도 없고, 어떠한 지도적인 이념을 제시할 마음도 없습니다."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
오에 겐자부로 지음, 윤상인·박이진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12
15년 동안 오에 겐자부로를 취재해온 <요미우리신문> 문화부 담당 기자 오자키 마리코와의 대담집이다.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만년의 작업까지 넘나드는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작가 오에 겐자부로뿐만 아니라, 인간 오에를 만날 수 있다.

표정훈 작가, 평론가.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국대학교 강사로 재직했다. 삼성출판박물관 전시기획자문위원이며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산업노동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토마스 핀천을 향한 폴 토머스 앤더슨의 애정

《바인랜드》에서 출발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누군가가 이 작품을 망쳐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망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은 토머스 핀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인히어런트 바이스>를 완성한 뒤 이렇게 말했다.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이었다. 핀천을 향한 애정은 오래전부터 유명했다. 그는 원작의 세계를 존중하며 첫 영화화를 마쳤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핀천의 소설 《바인랜드》에서 출발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선보였다. 한 거장의 세계를 두 번이나 화면으로 옮겨낸 감독. 그는 왜 토머스 핀천에게 이토록 매료되었을까.

글. 하성태(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 **사진.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은둔의 작가

토머스 핀천은 누구인가. 현대 영미 문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장’이자 ‘은둔의 제왕’으로 불리는 그는 1937년생으로, 1963년 첫 장편 《브이》를 내놓았다. 평생 역사와 물리학, 철학과 수학, 문학과 종교, 예술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백과사전적 서사를 그려왔으며, 미국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주류 담론과 하위문화,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동시에 시대와 구조라는 시스템을 관통하는 비판적 세계관으로 명성을 쌓았으며,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거장이기도 하다.



《바인랜드》
토머스 핀천 지음, 박인찬 옮김 | 창비 | 2016
1960년대 미국의 반문화 운동과 1980년대 레이건 시대를 오가며 개인과 국가 권력의 충돌을 그린 작품이다. 비선형적인 서사와 풍자, 음모론적 상상력이 어우러진 토머스 핀천의 대표작이다.



일찍이 <부기 나이트>로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한 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폴 토머스 앤더슨 역시 이 독창적인 문학에 매료된 독자 중 한 명이었다. 1960년대 시대정신의 몰락을 다룬 <인히어런트 바이스> 각색 당시에는 핀천의 세계관을 존중하기 위해 각색을 최소화했다고 밝힐 만큼 원작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 집요한 애정은 핀천이 17년 만에 내놓았던 1990년 작품 《바인랜드》를 재해석한 열 번째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이어졌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포함해 6개 부문을 휩쓸며 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시금 증명한 그. 핀천의 다층적인 세계관을 스크린으로 끌어오기 위해 오랜 시간 각색에 매달린 이유다.

텔레비전을 집어삼킨 혁명의 세대

히피, 베트남전, 반전 운동과 여성 인권운동, 그리고 비틀즈. 1960년대 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이다. 《바인랜드》는 1980년대의 눈으로 바라본 1960년대에 관한 애증의 서사시다. 핀천은 자신의 청춘이었던 1960년대를 50대의 나이로 돌아보며 결코 낭만이나 회고조에 빠지지 않는다. 그에게 1980년대 미국, 즉 레이거니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중심의 자본주의는 1960년대의 이상과 분열, 그리고 좌절이 잉태한 결과물이다.

소설은 1960년대를 통과해 기성세대가 된 이들을 “죽음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존재인 ‘타나토이드’로 묘사한다. 이들은 ‘바인랜드’라는 중간 지대에 모여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은 채, 원한에 사로잡혀 텔레비전 시청에 몰두한다. 소설은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공들여 묘사하며 독창적인 블랙코미디의 어법을 취한다. 배경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처럼 통제와 감시의 그림자가 드리운 1984년의 캘리포니아 북부. 과거 히피로 살던 조이드와 딸 프레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조이드의 전처 프레네시에게 집착하는 연방 검사 브록이 프레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프레네시는 1960년대 다큐멘터리 영화 운동 집단 ‘24fps’의 일원이었지만, 브록과의 관계 때문에 조직을 배신한 인물이다. 프레리는 두 살 때 엄마와 생이별했고, 조이드는 히피와 좌파들이 모여 사는 바인랜드에서 홀로 딸을 키웠다. 프레네시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서 도망쳐 종적을 감춘 상태다. 10대로 성장한 프레리는 엄마를 찾아 나서며 그간 상상조차 못 했던 엄마의 과거와 출생의 비밀을 알아가게 된다.



작품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600쪽이 넘는 분량뿐만 아니라 등장인물과 지적 인용, 문장 자체가 주는 무게감도 상당하다. 십여 줄의 문단이 단 한 문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거대함 속에서 회상과 환상, 인용과 부연이 교차한다.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읽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특히 1960년대 혁명과 학생운동에 대한 세부 묘사와 블랙코미디적 시각은 독보적이다. 시대에 대한 비판과 전망이 장대한 문장에서 자유롭게 흘러 다닌다. 소설은 가족의 재회를 통해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프레리의 남자친구의 입을 빌려 1960년대 혁명 세대를 향해 서늘한 일침을 놓는다. 확실한 문학적 자기반성이다. “아저씨들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명을 믿고, 그것을 위해 바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들은 확실히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텔레비전이 아저씨들을 붙잡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 |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 2025
추적극의 긴장감 위에 가족 서사와 정치적 풍자를 겹쳐 놓은 작품으로, 감독 특유의 묵직한 연출과 블랙코미디가 돋보인다. 《바인랜드》의 핵심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시대와 설정을 새롭게 구성해 독자적인 영화로 완성했다.

텍스트를 넘어선 영화적 재해석

폴 토머스 앤더슨은 토머스 핀천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숨긴 은둔 작가이기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대신 핀천의 원작을 바이블처럼 삼아 작업에 임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대해 그는 “《바인랜드》를 너무 사랑해서 오랜 각색 기간 끙끙 앓았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열 번째 작품은 현대 영화사에서 가장 뛰어난 각색 중 하나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다. 시대 배경부터 인물의 이름, 세부 설정까지 대담하게 재구성했다. 1960년대와 1980년대는 각각 1980년대와 현재로 옮겨졌다. 영화 운동 집단은 극좌 성향의 폭력 혁명 단체로, 바인랜드는 ‘박탄 크로스’라는 가상의 도시로 변모했다.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끝내 딸과 엄마의 재회가 성사되지 않는다.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은 방대한 원작을 현대화해 묵직한 작가 영화로 완성해 냈다. 핀천 특유의 풍자와 유머, 주제 의식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동시에 ‘과거의 혁명가가 딸을 숨겨 키우지만 잊었던 과거가 다시 그들을 위협한다’라는 핵심 구조에 영화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성공적인 문학 각색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모범으로 남을 것이다.

하성태 영화 및 대중문화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다. 《무비스트》, 《FILM2.0》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브런치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시사, 방송, 영화에 대한 비평을 연재하고 있다.

소식을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고문헌 특별전
<옛한글로 읽는 조선의 살림 비법>
10월 25일까지 개최 등

55
국내 도서관 소식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향후 2년 국가 도서관 정책 총괄 등

58
국외 도서관 소식
스페인 문화부 ‘2026-2030년
독서 진흥 계획’ 발표 등

59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읽으면 보이는 퀴즈
이달의 최애 문장
2026년도 《오늘의 도서관》 설문조사

1 고문헌 특별전 <옛한글로 읽는 조선의 살림 비법> 10월 25일까지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25일까지 본관 1층 열린마당에서 고문헌 특별전 <옛한글로 읽는 조선의 살림 비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 지혜가 담긴 옛한글 고문헌을 선보인다.

가정생활 백과사전인《규합총셔》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과 술·과자류 조리법을 담은《쥬식방문》,《조선요리제법》,《쥬방문조과법》,《술방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쥬식방문》에는 흰떡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미나리, 숙주 등을 넣어 만드는 떡볶이 조리법이 실려 있어 오늘날과는 다른 떡볶이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규합총셔》에는 소금을 끓여 빨면 머리 때가 지워지고, 말린 뱀장어 뼈를 옷장에 넣으면 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의복 관리법이 담겨 있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전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시장에 비치된 QR 코드를 통해 우리 옛한글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 등이 영문으로 상세히 안내된다.

문의 고문헌과(02-590-0507)



<옛한글로 읽는 조선의 살림 비법> 포스터

2 한국 주식시장 초기 역사를 담은 '주식' 디지털 큐레이션 공개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화한 자료를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디지털 큐레이션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디지털 큐레이션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식'이다.

주식 큐레이션은 대한증권거래소의 출범 과정과 초기 증권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자료인 1956년 1월 21일 자《평화신문》의 기사 '신장한 증권거래소'에는 금융·보험·증권업계가 공동 출자해 명동의 옛 증권거래소 건물을 복구하고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 광복 이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출발하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기사와 연계한 SNS 게시물 형태의 카드뉴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았던 신문 속 연재만화, 영화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시나리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최를 기념한 도서관 관련 주제 잡지 등 신규 큐레이션 3종도 공개했다. 이번 4종을 시작으로 올해 총 8개의 주제별 디지털 큐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과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www.nl.go.kr/newspap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02-590-0794)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주식' 디지털 큐레이션 화면

3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기념 특별전 10월 6일까지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오는 10월 6일까지 특별전 〈한 권의 책에서 온 세계로, K-콘텐츠〉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축적된 한국의 책과 기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K-콘텐츠로 재탄생해 세계로 확산되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새로운 창작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의 여정을 조명한다.

전시는 총 4부와 WLIC 특별존, 인터랙션 존으로 구성되며 고서, 필사본, 딱지본, 잡지, 음반, 영화, 웹툰, 드라마, K-POP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인다. 프랑스 서지학자 모리스 쿠랑의《한국서지》, '아리랑' 악보가 최초로 실린 영문 잡지《코리안 리포지터리》, 게일의 영문 번역판《구운몽》 등 귀중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야담집《어유야담》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민속놀이를 기록한《조선의 향토오락》과 〈오징어 게임〉 등을 연결해 한국의 이야기가 오늘날 K-콘텐츠로 변주된 과정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한국문학과 한국어 학습 교재의 역사를 소개하고,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이야기가 다시 도서관에 수집·보존되는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보여준다. 본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02-590-0561)



〈한 권의 책에서 온 세계로, K-콘텐츠〉 포스터

4 미출시 한국 슈팅 게임 '그날이 오면' AI 기술로 최초 공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디지털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작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게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때 개발·유통되었으나 이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종 게임과 미발매 게임 기록을 소개한다. 1980년대 초부터 수집·보존해 온 게임 잡지 4종, 매뉴얼 6권, 플로피디스크 게임 3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한국 게임이 지닌 문화적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게임 잡지 광고에만 흔적으로 남아 있던 미출시 슈팅게임 '그날이 오면'을 AI 기술로 재현해 최초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단종된 저장매체와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관람객이 사라진 게임 데이터를 탐색·회수해 AI 기술로 복원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AI 게임 체험존도 운영한다.

문의 자료보존연구센터(02-590-0748)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 포스터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18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꿈꾸는 도서관, 함께하는 AI: 미래세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을 주제로 ‘제18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가 학습과 창작 등 일상 곳곳에 자리 잡은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이 이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도서관 인공지능 특별관심그룹 의장인 앤드루 콕스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의 ‘도서관과 윤리적 AI’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이정미 교수의 ‘AI와 함께 읽고, 묻고, 나누며 성장하는 아이들’ 등 국내외 8명의 전문가들이 주제 및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02-3413-4773)



‘제18회 국제심포지엄’ 현장 모습

6 2026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특별전 <흙에서 삶까지, K-농업> 9월 13일까지 개최

국립세종도서관과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 13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특별전 〈흙에서 삶까지, K-농업〉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농서부터 데이터와 기술로 고도화된 오늘날의 K-농업까지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과 정책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흙에서 역사로: 한국 농업의 발자취, 역사에서 과학으로: K-농업의 기술과 혁신, 농업에서 삶으로: K-농업이 만든 우리의 일상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고서, 포스터,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조선시대 농서 《농가집성》과 첨단 농업 기술인 로봇착유기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044-900-9073)



<흙에서 삶까지, K-농업> 포스터

1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향후 2년 국가 도서관 정책 총괄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출범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007년 출범 이후 범부처 도서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김기영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 위촉직 위원 14명, 정부 당연직 위원 1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다. 김기영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도서관협회 인공지능(AI)스마트워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문헌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위원회는 도서관, 출판, 문화예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전국 지역서점 70곳에서 하반기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을 운영한다. 선정된 서점들은 매주 수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해 서점의 개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총 380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 주민의 일상을 소재로 책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역 영화인들과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연탐방, 명상과 달리기, 요리, 시 낭독회, 나만의 책 만들기, 그림책과 향을 결합한 체험 등 각 서점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협력한 ‘심야책방 네이버 기획전’을 통해 가까운 참여 서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보고 예약할 수 있다. 참여 서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점온(www.bookshop.or.kr)과 ‘인생독서×인생서점’ 누리집(bookshopculture.kr), 네이버 심야책방 기획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하반기 ‘문화요일 수요일×심야책방’ 포스터

3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1만 명 참여하며 성료

전주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남부시장 문화공판장 작당과 로컬공판장 모이장에서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만 3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94개 팀이 참여해 500여 종의 독립출판물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출판물 판매를 비롯해 독립출판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강연, 조선시대 서포(書鋪, 책을 만들고 팔던 가게)의 역사와 출판문화를 되짚는 차담회, 지역 헌책방의 가치를 공유하는 토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인생독서×인생서점' 사업과 연계해 전국 36개 서점과 서포도 참여했다.

전시장에서는 전국 서포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시 <서포의 방>과 목판 인쇄 체험을 운영했으며, 로컬공판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독서 체험과 공연, 남부시장 '백년의 서포'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4 부산 공공도서관 58곳으로 확대 시민이용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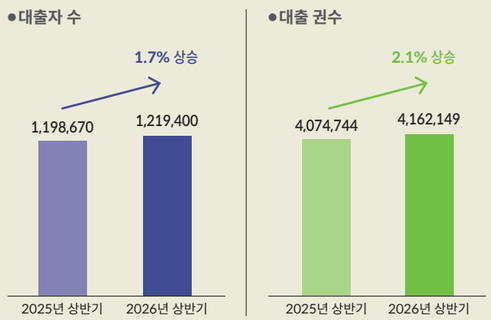
부산도서관이 올해 상반기 공공도서관 이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시민의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회원은 78만 1,082명으로 지난해 69만 2,922명보다 12.7% 증가했으며, 대출자는 121만 9,400명으로 1.7%, 대출 권수는 416만 2,149권으로 2.1%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도서관이 잇따라 개관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이 구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58개 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보다 5개 관 늘어났다.

시민의 독서·정보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자잡지·신문 이용은 44만 4,8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 3,080건보다 62.9% 증가했으며, 전자책 이용도 12만 8,943건을 기록했다.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현장 모습



2026년 상반기 부산시 공공도서관 이용통계

5 '2026 김포 독서대전' 9월 5~6일 개최

김포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모담도서관 일원에서 '2026 김포 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책, 일생의 기쁨'을 주제로 모든 세대가 책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독서문화축제로 마련된다.

행사는 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6일 야외행사가 이어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북콘서트, AI 체험존, 출판사 연계 북페어, 시민주도 독서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입체낭독극, <AI 시대 도서관에서 답을 찾다> 전시 등이 진행된다. 5일에는 은희경 작가와 김나영 평론가가 문학과 삶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북콘서트가 열리며, 6일에는 서경석 작가가 '웃음가득 역사여행'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김포시 도서관 누리집(www.gimpo.go.kr/lib/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진해아트홀도서관 임시개관 독서·문화·체험 복합공간 첫선

창원시도서관사업소는 지난 7월 27일 진해아트홀도서관을 임시 개관해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했다. 진해아트홀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개관 장서 3만 4,000여 권과 다양한 비도서 자료를 갖췄다.

1층에는 카페 '담소'와 이용자 휴게공간 '쉼', 강의실을 마련했으며, 2층에는 유아·어린이 자료실 '꿈틀'과 창작체험공간 '사부작'을 중심으로 AI 상상사진관, 실감형 체험관 '꿈지락', 작업공방과 댄스실, 미술공간 등 다양한 창의·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3층에는 종합자료실 '채움'과 디지털미디어공간 '틔:움'을 비롯해 LP 음악을 감상하는 '음악 정거장', 열린 열람공간 '머무름', 디지털 영상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OTT존' 등을 갖춰 독서와 휴식,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관 한 바퀴 스탬프 투어', '2026 창원의 책 한 줄 감상평' 등 참여 행사와 그림책《할머니의 용궁여행》원화 전시, 업사이클링 페이퍼아트, 가족 테라리움 만들기, 라탄·가죽 공방 등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민 의견과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9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해아트홀도서관 누리집(http://lib.changwon.go.kr/ja)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김포 독서대전' 포스터



독서·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 임시개관한 진해아트홀도서관

국외 도서관 소식

¡Leer es un derecho!

스페인 문화부

‘2026-2030년 독서 진흥 계획’ 발표

스페인 문화부는 ‘독서는 권리입니다!(¡Leer es un derecho!)’를 슬로건으로 한 ‘2026~2030 독서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독서를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이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독서 접근성, 지속가능성과 출판 다양성, 독서와 건강, 아동·청소년, 국제화 등 5개 축으로 구성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스페인 문화부는 이를 위해 8,27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이전 계획의 예산 규모보다 약 두 배 많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5% 증가한 금액이다.

계획 전반에서는 독서를 공공기관이 보장해야 할 권리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로 보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독서를 정신건강 증진과 관리의 수단으로 보고 보건·의료 분야와 연계한 정책도 추진한다.

BRITISH LIBRARY

영국국립도서관

‘2026 푸드 시즌 어워드’ 수상자 발표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은 ‘2026 푸드 시즌 어워드(Food Season Awards)’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어워드는 영국 음식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BL이 소장한 음식 관련 자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푸드 시즌 푸드 히어로상’은 아프리카·카리브계 식물성 음식 프로젝트 ‘가든 오브 아프루이카(Garden of Afruika)’를 이끄는 에이람 조티가 수상했다. ‘푸드 시즌 & 비틀스 푸드 스토리즈 펠로십상’에는 기후 위기 속 냉동 디저트 산업의 변화를 탐구하는 조지아 아폰소가 선정되었다. 음식을 가장 혁신적으로 활용한 전시에 수여하는 ‘푸드 시즌 전시상’은 푸드 뮤지엄의 <학교 급식(School Dinners)>이 수상했다. 학교 급식에 얽힌 공동의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의 급식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음식의 가치를 조명한 책에 수여하는 ‘푸드 시즌 스토리텔링 요리책상’에는 샤나즈 아산의 《잭프루트 크로니클스: 영국계 방글라데시인 주방의 추억과 레시피》가 선정되었다. 가족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영국 사회에 자리 잡은 벵골 음식과 방글라데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탐구한 책이다.

IFLA

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8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로 브라질리아 선정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2028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개최지로 브라질 브라질리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WLIC는 17년 만에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다시 개최되며,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브라질리아의 대회 유치는 브라질 과학기술정보연구소(IBICT)가 주도했으며,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여러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지지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수십 년간 도서관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장려해 왔다.

브라질 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향후 대회 준비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도서관계의 지식과 전문성을 교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참가자들이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27년 WLIC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해요!

《오늘의 도서관》

1. 읽으면 보이는 퀴즈

《오늘의 도서관》을 즐겁게 읽으셨나요?

소식지를 꼼꼼히 읽은 후, 이번 호에 등장한 도서 **5권**을 찾아보세요. 당첨된 두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소식지 08쪽, 11쪽, 13쪽, 14쪽, 43쪽을 살펴보세요.

① 《경험의 함정》, 로빈 M. 호가스 등
②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 이헌주
③ 《면도날》, 서머싯 몸
④ 《질문의 격》, 유선경
⑤ 《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녕
⑥ 《기억》, 베르나르 베르베르
⑦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❶ 퀴즈 풀기

2. 이달의 최애 문장

최근에 읽은 책들 중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었나요?

책 속에서 발견한 여러분만의 **최애 문장**을 적고, 이유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된 한 분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해당 원고는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❷ 응모하기

1. 읽으면 보이는 퀴즈 지난호 당첨자 최*창(1169) 홍*미(4168)

2. 이달의 최애 문장 지난호 사연 안*신(0544)

“좋아하는 게 하나 생기면 세계는 그 하나보다 더 넓어진다. 그저 덜 휘청거리며 살면 다행이라고 위로하면서 지내다 불현듯 어떤 것에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 일상에 밀도가 생긴다.”

초당옥수수 덕분에 여름을 향한 마음의 농도가 짙어졌듯 좋아하는 것을 찾아 마음을 내어주면 이 여름도 거뜬히 넘길 수 있으리라.

《아무튼, 여름》 | 김신회 지음 | 제철소 | 2021

• **참여 기간** 2026년 9월 15일 화요일까지
• **당첨자 발표**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연락

2026년도 《오늘의 도서관》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식지 《오늘의 도서관》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더 알차고 유익한 《오늘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upon 40명 추첨 증정!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총 **40분께** **커피음료 교환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응답 기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 14일 월요일
14일간

당첨자 발표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개별 통보

설문 참여